

금강경과 경제 ④

정재락 (전 영산대 교수)

사회복지 지향하는 소비·절제·보시해야

1. 들어가는 말

흔히 불교는 세속적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때 문인지 타종교에서 불교를 폄하하는 말 중 단골메뉴가 '불교 믿는 나라는 다 가난하다'이다.

심지어 어느 유명 교회의 잘 나가는 목사님은 2005년 발생한 쓰나미로 폐허가 된 서남아시아 국가들을 언급하며 '예수를 안 믿고 불교를 믿는 까닭이라' 해서 그에 대한 논쟁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적도 있다.

이에 대한 불교신자들의 반응이 재미있다. '일본이 어디 가난한 나라인가', '아프리카나 남아 등 예수를 믿는 나라가 가난한 곳이 많지 않은가' 등 정면으로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이다.

정말 부처님께서는 세간 사람들이 가장 가혹하게 부딪치는 경제 현상에 대해 침묵을 지키신 것일까. 아니면 재가 신도들을 위해 설하신 부처님의 교설이 간과되고 있는 것일까.

근래 우승택이라는 분이 불교 TV에 나와 '32개의 경제지표로 공부하는 금강경'이라는 강의를 해서 대중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남의 돈을 맡아 돌려주는 증권사 자산관리사인 그가 한때 잘못된 투자로 자신과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후 깊은 시름 속에서 우연히 금강경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자신이 처했던 모든 문제들의 원인과 해답이 있더라. 금강경의 '공', '무아'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세상을 바로 보는 안목이 생기자 부자는 물론 이거니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불교를 잘 이해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는 홍보대사가 되어 방송과 신문 등 언론 매체는 물론이거니와 부자 되는 경영 컨설턴트로서, 불교와 재산증식에 관한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연예인 못지않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전문 불교학자도 아닌 그가 투자전략을 금강경의 32품에 대입하여 조목조목 강의한 아이디어도 참신했지만 논리의 비약 없이 합리적이고 공감 가는 비즈니스의 경험을 적절히 섞어 대중 친화적이면서도 가장 예민한 현실적인 욕구를 솔직담백하게 파헤쳐 풀어낸 것이 인기 비결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강경과 경제' 강론에서는 첫째, 초기불교 경전에 실린 붓다의 말씀을 인용해 초기불교의 경제철학을 이해하고 둘째, 대승불교의 출현과 반야부의 핵심인 금강경과 유식사상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금강경의 사구계를 통해 경제 원리를 소개하며 넷째, 결론과 함께 강론을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초기불교와 경제

석가세존의 원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아함부'의 경전을 살펴보면 부처님과 부처님을 둘러싼 초기 교단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거기에는 물론 출가 비구들을 위한 근본 가르침인 삼법인과 존재의 보편적인 모습인 연기법을 인간의 실존에 비추어 열두 단계로 설명하신 십이 인연법을 통해 존재의 실체가 없음을 깊이 통찰하여 그로부터 벗어나 니르바나의 세계로 안내하는 사성제와 팔정도의 가르침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출가 수행자들의 경제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었다. 수행자들이 결식으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이 당시 인도의 사회풍습이었으며 또한 거처도 나무 밑 혹은 바위 위를 권장하였기 때문에 경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석존도 예외가 아니어서 병자를 제외하고는 그날분의 결식이 남으면 충분히 결식하지 못한 동료에게 나누어 주거나 혹은 강, 들판에 버려 물고기나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였던 지디음날을 위해 남겨서도 안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생활의 불편을 덜기 위해 소유품의 수가 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초기불교 교단의 경제적 원리는 철저한 무소유이며 생산과는 거리가 먼 공동소비체적이라 볼 수 있었다. 당시에도 출가교단의 수행자들은 무위도식하며 국가나 사회에 손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음은 <잡아함경>에 실린 내용이다.

어느 때 거룩하신 스승(부처님)께서는 마가다나라 남산에 있는 '한포기 띠(茅)'라고 하는 바라문 촌에 계시었다.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문 바이라드바이자라는 씨를 뿌리는 데에 필요한 오백 자루의 팥을 소에 떼었다. 때 마침 그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있기에 스승은 한쪽에 가서 계시었다. 바라문 바이라드바이자라는 음식을 받기 위해서 있는 스승을 보고 말했다.

"사문(沙門)이여,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사문이여, 당신도 밭을 가십시오. 그리고 씨를 뿌리십시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바라문이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명에나 호미, 호미날, 작대기나 소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바라문이여,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갈고 뿌린 다음에 먹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스승은 대답했다. "바라문이여, 나의 믿음은 종자요,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내 명에와 호미, 부끄러

운은 팥이자루, 의지는 잡아매는 새끼줄, 생각은 내 호미날과 작대기입니다. 몸을 근신하고 말을 조심하며, 음식을 절제하여 과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실을 김매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내 명에를 떼어 놓습니다. 노력은 내 황소여서 나를 안온의 경지로 실어다줍니다. 물러남이 없이 앞으로 나아가 파안에 이르러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이 밭갈이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단 이슬(甘露)의 과보를 가져 오는 것입니다. 이런 농사를 지으면, 온갖 고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잡아함 98경>

붓다의 말씀은, 황폐한 땅을 농부가 경작하듯 불교수행자 또한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경작하니 무위도식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경제행위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가 신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세적인 재(財)를 존중할 것을 설하고 있다. 우리는 대개 석가세존의 모습을 부처님 입멸 후 승단의 출가 비구들을 위해 결집된 철저한 무소유와 결식에 의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가르침을 통해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부지불식간 경제행위는 천박하고 탐심 가득한 비불교적인 행위라고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다. 그러나 재가 신도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노력함을 높이 평가한 경전도 있다.

"비구들이여, 어떤 상인이 있어 오전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고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수 없고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수도 없느니라. 비구들이여, 어떤 상인이 있어 오전에 열심히 일하고 낮에도 열심히 일하고 오후에도 열심히 일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구비한 상인은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을 것이고 이미 얻은 재산을 더욱 늘릴 수가 있느니라." <중지부 경전3집자장품(남집대장경)>

한편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소비와 절제, 보시를 통해 공동체의 삶에 도움을 주어야한다는 말씀도 있다. 한때 세존께서는 왕사성 성안에 살고 있는 장자의 아들 신기라에게 여러 방편으로 사람의 책임과 의무를 설하여 주셨다. 그 가운데는 재산을 탕진하여 망하는 여섯 가지, 첫째 술과 약물에 중독되는 것, 둘째 일없이 바깥으로 돌아다니며 빈둥대는 것, 셋째 축제나 구경 같은 것에 탐닉하는 것, 넷째 노름에 취미를 두는 것, 다섯째 나쁜 이들과 어울리는 것, 여섯째 특별히 계몽을 받은 것이 있다. 이처럼 법답게 얻은 재산일지라도 사치하지 않고 남들에게 베풀어 복을 쌓으면 살아가 행복하고 죽어서 천상에 태어나리라는 것이 <육방예경>에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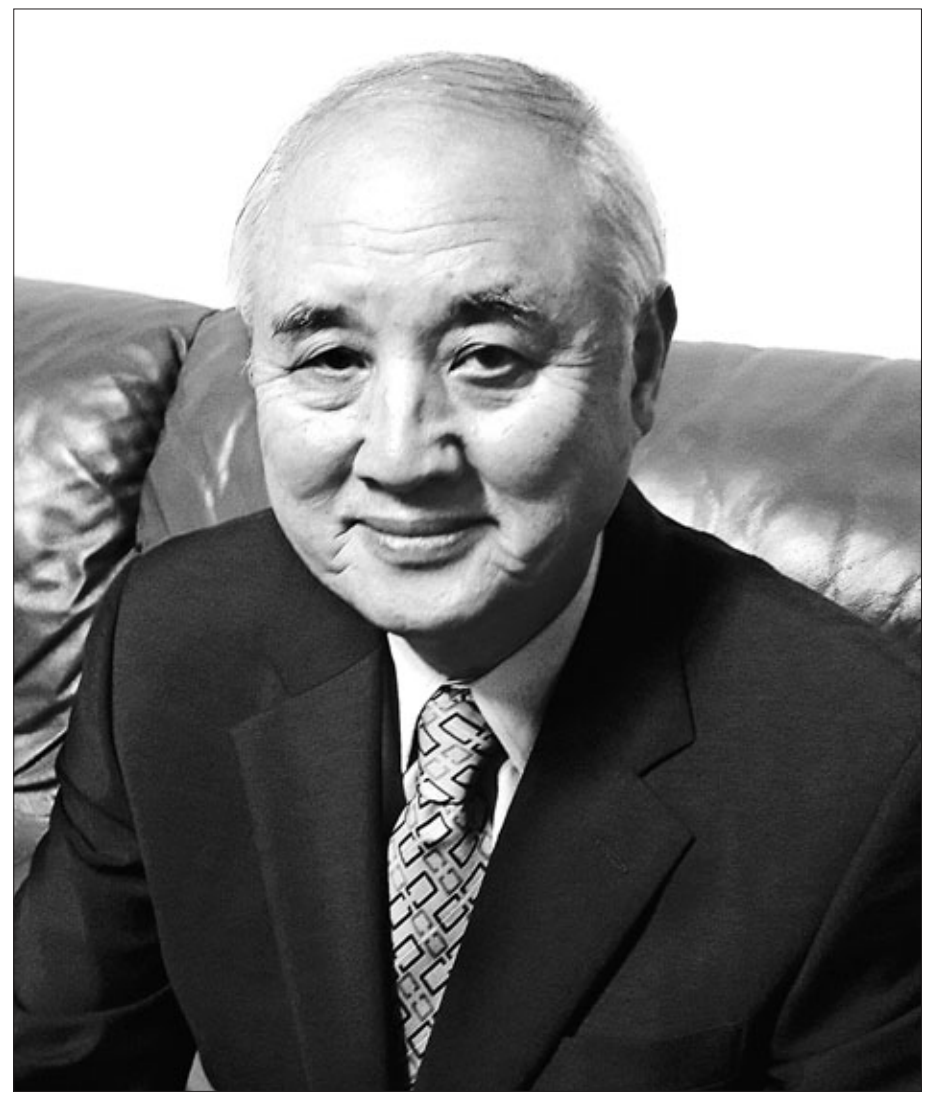
이는 적극적인 내급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며 불교의 중도사상에 의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잡힌 당시 사회 통념상 적당

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권하는 것이다. <앙굿타라 니까야>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수록되어 있다.

"좋은 집안의 사람은 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알아 균형이 잡힌 생활을 하여 지나치게 사치하지도, 지나치게 궁핍하지도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가신도들의 경제행위, 특히 재산의 획득과 증식에 대한 불교의 기본정신은 금욕적 노력의 정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이 얻어진 재산의 분배에 관한 교설을 살펴보면 <잡아함부>에서는 수입을 4등분하여 사본의 일은 생활비에 쓰고 사본의 이는 생업을 경영하는데 재투자해서 이윤을 얻도록 하며 사본의 일은 저축해서 자신이나 타인의 공필에 대비하도록 권하고 있다. 결국 소득 중에서 생활비와 저축에 쓰인 나머지를 재 생산을 위해 회전시키라는 것을 미루어 보건대 초기불교는 영리추구를 오히려 권장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인도사회의 정통 종교인 브라만교는 사성제금제도에 의해 출생에 의한 직업의 구별을 철저히 인정하고 있어 자유로운 경제 행위를 할 수 없었지만, 붓다



정재락 교수는 ... 전 영산대학교 항공운송전공 교수를 지냈다. 에어컨설팅 컨설턴트와 함께 카고 아카데미 원장이다. 대한항공 및 KLM네덜란드항공사, Kuhne & Nagel Korea 부사장을 지냈다. 저서로는 <항공물류이론과 실제>, <항공운송개론>이 있으며 논문은 <국제물류유통에 있어서 항공화물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항공물류개념의 현상론적 접근과 항공물류시스템 연구> 등이 있다.

는 출생상의 신분에 따른 직업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붓다를 찾아오는 대 중의 대부분은 경제 활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상인계급이 주류였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붓다의 출가승단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우기에 비를 피하며 안거하시도록 곳곳에 정사를 지어 헌납했던 상인들을 위해 붓다께서 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3. 대승불교와 금강경의 등장

붓다가 입멸했다. 그 후 여기저기서 붓다의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논쟁이 일어 시작하였다. 이에 가섭존자가 중심이 되어 교단의 말씀을 남기어 후세에 전하고, 또 붓다의 말씀을 대한 통일을 기해 제자들 사이 논란의 여지를 줄일 목적으로 500여 명의 제자들이 라자그라하(왕사성) 칠엽굴에 모였다. 이 칠엽굴은 우기동안 비구들이 비를 피하며 수행하던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섭존자가 상좌가 되어 아난존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승단의 출가 비구들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1차 결집이다. 당시는 지

금처럼 교토가 발달되지 않았으므로 부처님의 열반을 전해들은 갠디스 강 유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스승의 가르침을 전도하던 많은 제자들이 1차 결집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때 참석치 못한 제자들이 같은 도시의 다른 곳에서 별도의 결집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이 2차 결집에는 1차에 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비구, 비구니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많았다고 하며 따라서 이들이 기억하는 부처님의 설법 내용은 승단의 비구들 위주로 결집된 1차 결집 때와는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1차 결집 때에는 반야경과 반야부의 핵심인 금강경이 포함되지 않고 2차 결집 때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결집된 경전들의 대부분은 1,2차 공히 몇몇 도덕적 공리들을 제외하고는 비전(秘典)으로 전수되다가 2세기나 되어서야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콘제(Conze)는 추론하고 있다. <계속>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보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욱더 쉽게 성취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곡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 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

설법·화술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 장소 : 서울 중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 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이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중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중로 37역 1번, 2번 출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압박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질식사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